
기획논문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축제와 시민의 삶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축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의 삶의 방식을 문화와 교육, 정치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비극과 희극, 서정시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축제 연구가 필수적임은 분명하다. 예컨대, 핀다로스의 찬가는 그리스의 4대 운동경기 제전이었던 올림피아, 피티아, 네메이아, 이스트미아 제전의 승자를 위해 창작되고 공연되었기 때문에, 각 제전이 어떤 취지와 목적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우승자가 제전에서는 물론, 소속 도시국가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 각 도시는 어떤 의도에서 축제에 참가했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핀다로스의 송가를 깊게 이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없다. 비극과 희극은 더 더욱 그렇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개최된 대 디오니시아 제전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제전에서 경연대회 형식으로 공연된 비극과 희극의 내용과 형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요원하게 된다. 또한 아테네에서 고도로 발전한 수사학 가운데 ‘부각연설’(epideiktikos logos. 예식연설, 과시연설, 전시연설 등)을 이해할 때도, 이것이 장례식이나 개선식 이외에도 축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는 점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축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축제에 관한 연구는 해외 학계와 비교하여 국내 학계에서는 비교적 부진한 상황이며 관심이 적다. 우리의 기획은 바로 이런 통찰과 반성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축제란 무엇인가? 서양의 고대 사회에서 축제는 시민들로 하여금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계기였다. 특정한 신이나 영웅과 같은 초인간적인 존재를 기리고 제사와 기도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의미의 종교적인 행사를 수행하였다. 신이나 영웅은 당시 시민생활의 다양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신으로서 그리스(와 로마)의 각종 금속 물품의 제작과 관련되어 있고, 아테나 여신은 옷과 수공예와 같은 기술에서부터 전쟁의 전략에 이르는 다양한 지적 활동과 연결된다. 그밖에도 아폴론은 신탁에, 디오니소스는 포도 농사에, 제우스는 권력에, 헤라와 헤스티아는 가정과 관련된다.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적 특성은 이와 같은 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신성화와 유관하다.

축제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가장행렬과 향연, 운동경기, 음악경연대회, 연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을 정치적 긴장과 갈등, 일상생활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합법적 일탈과 유희, 대동단결의 친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축제는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벗어난 특별한 시간인면서, 동시에 고도로 계산된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축제가 주는 일탈이나 유희는 일상을 모멸하거나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힘을 주는 활력의 계기였다. 특히 축제는 특정 도시국가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자국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국가들 사이의 연대와 친교,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따라서 축제를 제대로 이해할 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생활과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기획은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큰 그림의 골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 편의 글은 고대 그리스의 축제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하나의 글은 로마의 축제를 다룬다. 범그리스 축제로는 가장 대표적인 올림피아 제전을 수사학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글이 첫 번째로 제시되며, 두 번째로는 범위를 좁혀 아테네의 고유한 축제라 할 수 있는 대 디오니시아 제전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는 축제를 바라보는 철학자의 통찰을 소개하며, 네 번째 글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백년제를 기리는 호라티우스의 작품을 다룬다.

「고대 올림피아 제전과 『시민 대축전에 부처』는 그리스의 모든 도시가 참여하는 범그리스 축제인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되었던 이소크라테스의 부각연설 『시민대축전에 부처』를 다룬다. 이 연설문은 그리스 도시들이 갈등과 전쟁을 분쟁을 멈추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예로부터 그리스에 위협이 되었던 페르시아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지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연설문이 왜 올림피아 제전에서 발표되었는가, 거꾸로 말해서 올림피아 제전이 범그리스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올림피아 제전이 이소크라테스에게는 범그리스적 연설을 내놓기에 최적의 기회였음을 밝히는 데에 역점을 둔다.

「테스모포리아 축제와 아리스토파네스의 『테스모포리아주사이』」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을 축제와 관련시켜 분석한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대 디오니시아 제전에서 원칙적으로 남성만을 관객으로 수용하는 디오니소스 극장 안에서 여성들의 제전인 테스모포리아 제전을 보여준다. 그리고 디오니시아 제전에서 활약했던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를 여성 혐오자로 그리면서 여성들의 축제를 남성들의 엿볼 수 있게 하는 시각의 매개로 삼는다. 여러 측면에서 이 작품은 역설적이며 이중적인 층

위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아리스토파네스가 상이한 두 축제를 연결시킴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세계의 조화를 꾀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도시 안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축제와 시민의 여가, 그리고 관조」는 고대 그리스의 축제가 시민들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 찾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축제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축제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를 비판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이 글은 축제의 참가와 공연의 관람이 시민 고유의 여가이며, 그것은 일정 수준의 음악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공연의 관람이 단순한 문화 소비 활동이나 종교적 제의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삶의 최고 단계인 관조와 연결된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로써 아테네 시민의 공동체적 삶에서 정치적인 활동과 개인적인 사색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축제의 참여와 연극 공연의 관람이라는 결론을 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시인과 시민교육 —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는 기원전 1세기 로마에서 시인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축제와 주연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본다. 특히 시인은 곧 사회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시인-교육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인의 역할과 축제의 의미를 조명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기원전 1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주관한 백년제(*ludi saeculares*) 분석의 사례로 삼되, 시인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와 연결시킨다. 이는 흔히 아우구스투스 통치를 선전하는 찬양시로 해석되었으나, 이 논문은 호라티우스의 찬가가 축제를 통해 시인이 수행하는 교육자 역할을 보여준다는 데에 주목한다. 호라티우스의 ‘백년제 찬가’는 권력자들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제시하고 시민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지를 가르쳤기 때문이다.